

유란시아서

<< [제 1 편](#) | [부분](#) | [내용](#) | [제 3 편](#) >>

제 2 편

하나님의 성품

2:0.1 (33.1)

사람이 가진 가능한 최고의 **하나님** 개념이, 최초의 무한한 성격자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이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신분을 구성하는 신다운 성품의 어떤 특징을 연구해도 좋고, 이것은 유익할지도 모른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준 다양한 가르침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의 훌륭한 필사 생애에서 펼쳐진 바와 같이, **아버지**를 계시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이로 보고,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러러본다면, 사람은 또한 신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0.2 (33.2)

하나님의 성품은 최상의 개념이 계시된 데서 연구할 수 있고, 신의 신분은 숭고한 이상(理想)을 묘사한 것으로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의 온갖 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깨우치고 영적으로 훈육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기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인 종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발견해야 한다. 육신화된 **미가엘**의 일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배경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관계된 어떤 개념과

이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써도 좋고, 이러한 개념과 이상은 **우주의 아버지** 성격의 성질 및 신분에 관한 인간의 개념을 더욱 조명하고 통일하는 데 아마도 기여할지 모른다.

2:0.3 (33.3) 인간이 가진 **하나님** 개념을 확대하고 영적으로 높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필사 지성의 제한된 능력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다. 사람의 유한한 필사 지성에게 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영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실예(實例)를 들거나 비교할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빈곤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우주의 아버지**가 수여한 **조절자**가 필사 지성 속에 갇히고, **창조 아들의 진실의 영**이 그 지성에 스며든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의 **하나님** 개념을 키우려는 우리의 온갖 노력은 거의 무익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개념의 확대를 돕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신성한 영이 계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지성에게 더 묘사해 보라는 명령을 나는 즐겁게 실행한다.

1. 하나님의 무한성

2:1.1 (33.4) “우리는 **무한자**를 만지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신의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았도다.” “그의 이해력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도다.” **아버지**의 계심에서 나오는 빛이 눈부시게 밝아서, 비천한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짙은 어둠 속에서 사시는” 것과 같다. 그의 생각과 계획은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수없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며, 우리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연세도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땅

위에 거하겠느냐? 보라,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려운가, 그의 길은 찾아낼 수 없구나!”

2:1.2 (34.1)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무한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또한 충실한 **창조자**이라.”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처분자**, 혼의 근원이요 운명이라. 그는 **최상의 혼**, **시초의 지성**, 모든 창조의 **무제한 영**이라.” “위대한 **통제자**는 실수가 없으며, 위엄과 영광 속에 찬란히 빛나도다.” “**창조자 하나님**은 두려움과 적의(敵意)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는 불멸 ·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하고 풍성하시니라.” “만물의 지고한 조상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가.” “**무한자**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아주 뛰어나시도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선하고 완전한 모든 목적을 가진 **아버지**이라.”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고 영원한 **창조자**는 가장 높은 원인이라.”

2:1.3 (34.2) **아버지**의 영원한 보편적 성격이 엄청나게, 무한히 명시되는데도, **아버지**는 그의 영원 · 무한함을 무조건 스스로 의식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의 완전함과 권능을 충분히 아신다. 신성한 동위자들을 제쳐 놓고, **하나님**은 우주에서 완전히, 적절히, 완벽하게 자아를 평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2:1.4 (34.3) 총 우주의 다양한 구역에서, **아버지**에 대한 다른 요구가 때때로 변함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러한 필요를 늘 어김없이 채운다. 위대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고 이해하며, 그의 모든 완전한 시원적 속성을 무한히 자의식한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어쩌다가 생긴 이가 아니며, 또한 우주를 실험하는 이도 아니다. **우주 군주**는 모험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는 실험할 수도 있고, 체계의 우두머리는 연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을

보며,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광대한 영토의 어떤 우주에, 어떤 세계 · 체계 · 별자리에 있는 어떤 하위 존재가 겪는 어떤 실험과 어떤 모험도, 실제로 알아차리고 이해한다.

2:1.5 (34.4)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새롭지 않고, 어떤 우주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의 궤도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그는 시작하는 날도 끝날도 없이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지난날도 오늘도 앞날도 없다. 어느 시간도 어느 주어진 순간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유일한 **스스로 계신 이**이다.

2:1.6 (34.5) **우주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은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하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유한한 물질 존재와 낮게 창조된 다른 지적 존재들과 직접 친히 교통할 수 없게, 자동으로 자신을 차단한다.

2:1.7 (34.6)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다양한 생물과 접촉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이 주선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지은 성격자들 속에 예정되었고, 그들의 신성(神性)은 완전하지만, 때때로 행성 민족들의 바로 그 피와 살의 본질을 취하고, 너희 사이에 하나가 되고 또한 너희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가엘**의 수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며,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로,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 곧 다양한 계급의 천사 무리와 기타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은 낮은 기원을 가진 물질 존재들에게 가까이 가서, 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시중들고 봉사한다. 그리고 셋째로, 비인격(非人格)인 **신비의 훈계자**, 곧 **생각 조절자**가 있으며, 이들은 아무 공고도 설명도 없이, **유란시아**의 인간과 같은 자들에게 깃들려고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보낸 선물이다. 끝없이 풍부하게 그들은 영화로운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식할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필사자의 겸손한 지성을 꾸미고 거기에 깃든다.

2:1.8 (35.1) 이런 방식과 기타 여러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한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인 인간의 유한한 지성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려오거나, 또는 그의 무한성을 수정하고, 뭉게 하고, 희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절대성이 줄어드는 일련의 성격 분산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방대한 우주의 여러 영역에 있는 다양한 지적 존재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게 된다.

2:1.9 (35.2) 그가 무한 · 영원하고 첫째라는 사실과 현실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알아듣기 어렵기는 해도, 신비 속에 가려 있어도, 또는 **유란시아**에 사는 부류와 같은 인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불가능해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참말이다.

2:1.10 (35.3) **처음 아버지**의 계획이 무한하고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한 존재도 이러한 신의 계획과 목적을 언제라도 충분히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본래부터 불가능하다. 우주에서 진보하는 연속된 단계에서 인간의 승천 계획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여러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서 필사 인간은 그 목적을 이따금, 여기저기에 얼핏 볼 수 있다. 사람은 무한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무한한 **아버지**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자녀의 유한함을 아주 확실히,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싼다.

2:1.11 (35.4) **아버지**는 신성(神性)과 영원을 많은 상급 **파라다이스** 존재와 함께 가지지만, 동위에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동료들을 제외하고, 무한, 그리고 그에 따라 우주에서 첫째인 신분을, **아버지**가

누구와도 함께 가지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성격의 무한성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유한 성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지느니라”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실이요,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필사 인간에게 깃드는, **우주의 아버지의** 순전한 분신, **신의** 그 분신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 곧 가장 높은 **아버지** 무한성의 일부이다.

2.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2:2.1 (35.5) 너희의 옛 선지자들조차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 영원하고, 시작과 끝이 없이 순환하는 성품을 알아차렸다.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온 우주에 계신다. 모든 절대적 위엄과 영원한 위대함을 가지고, **아버지**는 현재의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 이 생명은 영생이라.” 영원한 세월 전체를 통해서,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분은 **아버지**였다. 신의 모습 전체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요, 변하지 않노라.” 온 우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행성 사이의 사무 집행에 “변동이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처음부터 끝을 선언하시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나의 권고는 유효하며,”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뜻한 모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실행하리라.” 그러므로 **첫째 근원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2:2.2 (35.6)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은 궁극에 완벽하고 완전히 충만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영원하리라,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느니라.” **우주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완전한 최초의 목적을 누우치지 않는다. 그의 계획은 견고하고, 그의 권고는 바뀔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은 신답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그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버린 어제 같고 밤 중에 불침번과^[11] 같으니라.” 신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이 얼마나 긴 것인가 필사 인간의 한정된 머리는 언제까지라도 도저히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2:2.3 (36.1) 그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가 지은 지적 존재들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 보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겉보기에, 겉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 표면 밑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표현 밑에,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구한 계획이 여전히 있다.

2:2.4 (36.2) 바깥에 여러 우주에서, 완전은 반드시 상대적 용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중앙 우주, 그리고 특히 **파라다이스**에서, 완전은 묻어지지 않고, 어떤 단계에서 절대적이기도 하다.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모습은 신의 완전함을 다르게 펼쳐 보이지만, 묻게 만들지 않는다.

2:2.5 (36.3) **하나님**이 시초부터 완전한 것은 그가 올바르다는 가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다운 성품이 본래부터 완전히 선함에 있다. 그는 마지막이요,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의 올바른 기질에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공간 세계의 살아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계획 전체가, **파라다이스**에서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체험하는 높은 운명으로,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을 높이 올리는 신성한 목적에 중점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는 광대한 온 우주에서 자의식을 가진 인간 모두에게, 결코 그침없이 스스로를 주신다.

2:2.6 (36.4)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히 완전하며, 자신의 체험으로 불완전을 몸소 겪을 수 없지만,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 짓는 진화 우주에서 투쟁하는 어떤 인간이 어떤 불완전한 체험을 겪어도, **하나님**은 함께 의식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해방하는 손길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우주 수준까지 올라간 모든 필사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들의 성품을 둘러싼다. 이 방법으로, 또 신성한 계심의 접촉을 통해서,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 전체에서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 생애에서, 미숙하고 불완전한 특징을 가진 체험에 실제로 참여한다.

2:2.7 (36.5)

인간의 한계, 잘못의 잠재성은 신의 성품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필사자가 겪는 잘못의 체험, 그리고 사람과 잘못의 관계는 모두, 시간 세계의 자녀들 — **파라다이스**를 떠나는 모든 **창조 아들**이 창조하거나 진화시킨 인간, 도덕적 책임을 가진 인간 — 속에서 아주 확실히, 늘 확대되는 **하나님**의 자아 실현의 일부이다.

3. 응보와 공정

2:3.1 (36.6)

하나님은 올바르며, 따라서 공평하다. “주는 모든 일에 올바르시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도 까닭 없이 하지 않았노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아주 올바르시니라.” **우주의 아버지**의 응보는 인간의 행동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며,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음이라.”

2:3.2 (36.7)

그러한 **하나님께**, 그의 변함없는 법령을 고치라고, 그래서 그의 현명한 자연 법칙, 그리고 올바른 영적 명령의 작용으로 생기는 마땅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없이 호소하다니,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사람이 또한 이를 거둘 것임이라.” 잘못된 결과를 거두는 응보의 경우에도, 이 신의 응보는 언제나 자비로 인하여 무디어진다. 무한한 지혜는 어떤 주어진 경우에 내릴 응보와 자비의 비율을 영원히 중재한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잘못과 계획하여 반항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그 정부에서 개별 백성의 존재를 잃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죄를 지은 마지막 결과는 소멸이다. 결국, 죄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품어서 온통 비현실적이 됨으로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러나 그 우주에서 통용되는 예정된 사법(司法) 질서가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그러한 인간이 사실로 실종되는 일은 언제나 늦춰진다.

2:3.3 (37.1)

존재의 정지(停止)는 보통 그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서 섭리 시대나 새 시대의 판결이 있을 때 공포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이 판결은 행성의 한 섭리 시대 끝에 온다. 행성 회의로부터 **창조 아들**의 법정을 거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을 가진 모든 법정이 나란히 행동함에 따라서, 존재의 정지가 그런 때에 공포될 수 있다. 사멸(死滅)하라는 명령은, 죄인이 거주하는 구체에서 시작되는 고발을 연달아 확인하고 나서, 초우주 고등 법원에서 시작된다. 다음에, 상부에서 소멸 선고가 확인될 때, 초우주 본부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의 직접 행위에 따라서, 그 집행이 일어난다.

2:3.4 (37.2)

이 선고가 마지막으로 확인될 때, 죄의 편을 들었던 자는, 순간에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부활은 없고, 그 운명은 영구하고 영원하다. 신분의 산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 변하고 공간에서 변형되어 그 요소들이 언젠가 출현했던 그 우주 잠재성으로 돌아가서 분해된다. 불의한 자의 인격에 관해서 말하자면, 영생(永生)을 보장했을 뻔했던 선택과 최종 결정을 그 인간이 내리지 못함으로, 계속하는 생명이 타고 다닐 몸을 잃어버린다. 붙어 있던 지성이 줄곧 죄를 품어 마침내 완전히 불의와 한 편이 될 때, 생명이 정지되고 나서, 우주에서 해체되고 나서, 따로 떨어진 그러한 인격은 창조하는 대혼(大魂)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가 된다. 그 부분은 결코 다시 인격자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신분은 마치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가 깃들었던 인격자의 경우에, 그 경험적 영의 가치는 계속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살아남는다.

2:3.5 (37.3) 실체의 여러 사실 수준 사이에서 어떤 우주 경쟁이 생기더라도, 높은 수준의 성격자는 궁극에 낮은 수준의 성격자를 이긴다. 우주의 투쟁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결과는, 질 높은 신(神)이, 의지를 가진 어떤 인간이 아무리 현실이거나 사실이라도, 그에 필적한다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생긴다. 순전한 악, 철저한 잘못, 고의(故意)로 짓는 죄, 수그러지지 않는 불의는 본래부터, 자동으로 자살이다. 비현실적인 그러한 태도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올바르게 판결하는 우주 법정의 장치, 응보를 결정하고 공평을 찾는 장치가 작용할 때까지, 일시 자비와 관용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2:3.6 (37.4)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의 통치는, 사람을 창조하고 영답게 변화시키는 통치이다. 이 **아들**들은 점진적으로 필사자가 올라가는 **파라다이스**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반역자 및 그릇되게 생각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노력이 모두 마침내, 영원히 거부될 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사법권** 밑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소멸하라는 최종 선포를 집행한다.

4. 신의 자비

2:4.1 (38.1) 자비는 다만, 유한한 인간의 자연스런 약점과 환경의 장애를 완전히 숙지(熟知)하고 충분히 인식하여 생겨나는 바로 그 지혜로 인하여 응보가 완화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동정심이 가득하고 품위가 있으며, 오래 참고 자비가 풍성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니,” “그가 얼마라도 용서하실 것임이라.” “주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라.” 그렇다, “그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이어지도다.” “나는 땅에서 자애와 심판과 옳은 일을 행하는 주라, 내가 이를 기뻐하는 까닭이라.” “나는 사람의 자손을 일부러 괴롭히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않으니,” “내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4.2 (38.2) **하나님**은 본래 친절하고 자연히 동정심이 많고, 언제까지나 자비롭다. 결코 그의 자애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한테 어떤 수고라도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빈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자비와 그의 유익한 은혜가 가득 흘러내릴 것을 보장하기에 온통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신다. 사람이 이웃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웃을 용서하는 것, 아니 사랑하는 것까지도 더욱 쉬워진다.

2:4.3 (38.3)

오로지 무한히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올바른 **하나님**은 동시에, 그리고 어떤 주어진 우주 환경에서도, 응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우주에 있는 자녀들에 대하여 모순되는 태도를 가져서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상반되는 태도로 인하여 갈등을 겪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시니 그의 영원한 성품의 모든 신다운 속성과 무한한 성질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동시에, 똑같이 만족시키는 우주 행위를 택하라고 그의 자유 의지를 틀림없이 인도한다.

2:4.4 (38.4)

자비는 선과 사랑에서 자연히, 불가피하게 생기는 산물이다. 사랑의 **아버지**는 좋은 성품 때문에 우주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어느 집단의 어떤 구성원에게나, 도저히 지혜롭게 자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할 수 없다. 영원한 응보와 신의 자비를 합친 것은 인간의 체험에서 공평이라 부를 것이다.

2:4.5 (38.5)

신의 자비는 우주에서 완전과 불완전 수준 사이에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형편에 **최상위**의 응보가 적응된 것이요, 시간 세계 자녀들의 가장 고귀한 관심과 우주 복지를 만족시키려고 영원의 정의가 수정된 것이다. 자비는 응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우주에서 하위 영적 존재와 물질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다시피, 오히려 최상의 응보를 내릴 요구를 이해심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시공 창조의 다양한 지적 존재들에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응보이며, 이러한 응보는 **우주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관계된 **창조자**들 모두의 신다운 지혜로 고안되고, 만사를 아는 그들의 지성과 통치하는 자유 의지로 결정된다.

5. 하나님의 사랑

2:5.1 (38.6) “**하나님**은 사랑이라.” 따라서 우주 사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친히 가지는 태도는, 언제나 신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신다. “그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태양이 비치게 하고, 올바른 자와 그릇된 자에게 비를 보내시니라.”

2:5.2 (39.1) **아들**들이 희생되거나 하위 생물이 중재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설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되니, 이는 “바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까닭이라.” 이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조절자**를 인간의 지성에 깃들라고 보낸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도 좋으니라.” 그는 “진실의 지식을 얻게 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니,” 그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니라.”

2:5.3 (39.2) **창조자**들은 신의 법칙을 어리석게 어겨서 생기는 재난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하려고 제일 먼저 애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은 아버지다운 애정이다. 그러므로 가끔 그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꾸짖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시니라.” 너희의 불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그도 같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2:5.4 (39.3) **하나님**은 죄인에게 신답게 친절하다. 반역자들이 옳은 길로 돌아설 때, 이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범죄를

지워버리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다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보라.”

2:5.5 (39.4)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는 가장 큰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할 최고의 이유는 우리에게 깃드는 **아버지**의 선물 — **조절자**이며 — 그는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시각을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네가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지만, 깃드는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파라다이스**에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이 계신 앞에 네가 마침내 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명 한 생명, 우주를 거치고 또 우주를 거쳐서, 한 시대 한 시대, 너는 어김없이 안내를 받는다.

2:5.6 (39.5) 인간 본성의 한계와 물질 창조의 장애물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야 할 끔찍한 거리가 (물리적 공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큰 영적 차이가 있어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러나 너와 **파라다이스**에 **하나님**이 몸소 계신 앞을 물리적 · 영적으로 떼어놓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멈추어 **하나님**이 네 안에 산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분 나름대로 그 사이에 이미 다리를 놓았다. 네가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하는 동안, 네 안에 살고 너와 함께 고생하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을 보냈다.

2:5.7 (39.6) 그토록 위대한 분, 동시에 비천한 인간을 향상시키는 봉사에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쉽고도 즐겁다. 그렇게 창조력과 통제력이 막강하고, 그래도 완전히 선하고, 그토록 충실히 우리를 항상 보호하는 자애심을 보이는 분을 나는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위대하고 막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기만 하다면, 나는 아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한다.

2:5.8 (39.7) 공간 우주의 진화에 본래 있는 다양한 시간 세계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아주 용감히 투쟁하는 **창조 아들** 및 그 하위 행정가들을 관찰할 때, 우주의 이 작은 통치자들에게 내가 크고 깊은 애정을 가진 것을 나는 발견한다. 결국, 그 영역의 필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주의 아버지**와 신이든 인간이든 모든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격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대체로,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직접 반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있으니, 비록 **하나님**이 최상 · 궁극 · 절대성과 같은 이 모든 속성을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를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2:5.9 (40.1) 현재,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영역에 두루,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품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대하여 인격자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 밖에 없다: 너희는 갈수록 더 **조물주**를 사랑하게 될 터이고, 어린아이가 땅에서 부모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마찬가지로 **우주의 아버지**는 그가 창조한 아들딸을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그들의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2:5.10 (40.2)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총명하고 멀리 내다보는, 부모의 사랑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이 지닌 신다운 지혜와 모든 다른 무한한 특징과 조화되어, 신의 사랑이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생각 조절자**의 수여에서 신이 필사 존재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을 지켜볼 수 있지만, 너희가 받는

아버지 사랑의 가장 큰 계시는 **미가엘 아들이** 땅에서 이상(理想)처럼 영적 일생을 살았던 수여 생명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 인간 혼에게 개인적 필요에 맞추는 분은 안에 깃드는 **조절자**이다.

2:5.11 (40.3) 사랑이라는 낱말, 인간적 상징을 이용하여,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자녀에게 품는 신의 애정을 묘사하도록 제약을 받으니 나는 이따금 거의 비명(悲鳴)이 나올 지경이다. 이 용어는 존경하고 헌신하는 필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의 가장 높은 개념을 뜻하지만, 온통 저열하고 전혀 부적당한 허다한 인간 관계를 표시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빌리더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인간에게 품는 비할 수 없는 애정을 가리키는 데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다운 애정의 참된 성질과 지극히 아름다운 의미를 인간의 머리에 전할 낱말, 더할 나위 없고 꼭 맞는 몇 가지 낱말을 내가 쓸 수 없으니 얼마나 유감인가!

2:5.12 (40.4) 개인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선한 나라가 될 뿐이다. 신의 성질이 무한히 통일되어 있기는 해도,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과 친히 가지는 모든 교류에 지배적 특징이다.

6. 하나님의 선하심

2:6.1 (40.5) 우리는 물리적 우주에서 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지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실을 헤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이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영적 세계에서 발견한다. 종교의 참 본질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철학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일 수 있고, 아니 어떻게 하든 총명하고 개인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종교에서 **하나님**은 또한 도덕성이 있고 선행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크다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선행한 **하나님**이라야 믿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선행심은 **하나님** 성격의 일부이고, 이 선의 총명한 계시는 오로지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소 겪는 종교적 체험에서 나타난다.

2:6.2 (40.6) 종교는 영적 성질을 가진 초월 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 필요를 인식하고 그에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진화된 종교는 윤리가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오직 계시된 종교가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성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임금다운 도덕을 지키는 **신**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예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생기는 친밀한 가족 도덕의 수준, 대단히 감동적인 수준까지 올려놓았으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

2:6.3 (41.1) “선이 가득한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을 누우치게 하느니라.” “모든 좋은 재능, 모든 완전한 재능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은 선행하며, 그는 사람의 혼이 영원히 쉼 안식처로다.”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니라. 오래 참고 선과 진실로 가득하도다.” “주의 선행을 맛보고 눈으로 볼지어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가득하도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혼의 상처를 고치시도다. 그는 사람에게 전능한 후원자이로다.”

2:6.4 (41.2) **하나님**을 왕이자 재판관으로 보는 개념은 높은 도덕 기준을 육성하고 한 집단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민족을 만들었지만, 이 개념은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개별 신자를 딱한 불안한 처지에 버려두었다. 후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선포했고, **예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아버지**인 것을 드러냈다. **예수**의 일생은 필사자의 **하나님** 개념 전체를 초월적으로 비취주었다. 자기를 잊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본래부터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그는 우주의 어떤 성격자에게도 **파라다이스 아버지**이다.

2:6.5 (41.3) **하나님**이 올바름은 그가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암시한다. 진실은 **하나님**이 계시자요, 선생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사랑을 갈망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분별 있는 친교를 찾는다. 올바름은 신다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늘 **아버지**의 사심 없는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는 그릇된 추측은, 신의 성품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미리 전제(前提)하며, 속죄(贖罪) 교리를 공들여 다듬는 길로 바로 이끌었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자유 의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2:6.6 (41.4) 애정이 많은, 하늘 **아버지**의 영은 땅에 있는 자녀들 안에 깃들며 그는 — 한편으로 응보를 찾으면서 한편으로 자비로운 — 분열된 성격자가 아니다. 그의 은혜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하지도 않다. 신의 올바름은 엄중히 처벌하는 응보에 지배되지 않는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을 초월한다.

2:6.7 (41.5) **하나님**은 결코 격노하거나, 복수심이 가득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부되었을 때 응보가 그 자비를 조절하고, 흔히 지혜가 그의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 참말이다. 그가 올바름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모순된 성격이 아니며, 신의 통일성은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위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독자성이 있는데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절대적 통일성이 있다.

2:6.8 (41.6)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 이러한 말은 철학적으로 참말이지만, **하나님**은 초월 성격자요, 성격자는 다른 성격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죄는 인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영원의 잠재성을 가진) 인격 실체이기 때문이요, 한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사로운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죄가 영적 실체가 아니요, 죄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보는 죄의 존재를 인식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죄를 없애 버린다. 필사자의 지성이 그에게 깃드는 영 **조절자**와 완전히 한 편이 될지 모르는 바와 같이, 바로 그 죄인이 또한 마침내 온통 죄와 한 편이 될 때, 이 신다운 성품의 태도가 변하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죄의 편이 되는 필사자는 전적으로 비영적 성품이 되고 (따라서 몸소 비현실이 되고), 궁극에 존재의 말소를 맛보게 된다. 점진적으로 현실이 되고 갈수록 영답게 변화되는 우주에서, 비현실성 아니 불완전한 인간 성품도, 언제까지나 존재할 수는 없다.

2:6.9 (42.1) 성격자의 세계와 얼굴을 마주 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격자인 것이 밝혀진다. 영적 세계를 마주 보면, **하나님**은 친히 베푸는 사랑이요, 종교적 체험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뜻하는 의지를 확인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의 자유 의지에, 곧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을성을 보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에, 기초를 둔다.

7. 신성한 진실과 아름다움

2:7.1 (42.2) 모든 유한한 지식과 인간의 깨달음은 상대적인 것이다. 높은 근원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는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지역 안에서 정확하고, 개인적으로 참일 뿐이다.

2:7.2 (42.3) 물리적 사실은 상당히 확고하지만, 진실은 우주의 철학에 살아 있고 유연한 요소이다. 진화하는 인격자들의 의사(意思) 소통은 겨우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인격자들은 오직 체험이 미치는 데까지 확신할 수 있다. 한 곳에서 전적으로 참인 듯한 것이 다른 창조 구역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일 수도 있다.

2:7.3 (42.4) 신의 진실, 최종의 진실은 변치 않고 보편성이 있지만, 여러 구체에서 온 수많은 개인이 말하다시피, 영적 일에 관한 이야기는, 지식의 상대적 완벽성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적 체험의 길이와 범위만 아니라 그 체험의 상대적 충만성 때문에, 때때로 그 세부가 다를 수 있다.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법칙과 법령, 생각과 태도는 영원히, 무한히, 보편적으로 참되다. 동시에 각 우주 · 체계 · 세계, 그리고 지음 받은 지적 존재에게 이것들을 적용하고 또 그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은, **창조 아들들이** 각자의 우주에서 작용하는 그들의 계획과 기법을 따르며, 또한 **무한한 영**과 기타 관련된 모든 하늘 성격자가 마련한 지역 계획 및 절차와 조화된다.

2:7.4 (42.5) 유물론(唯物論)이란 거짓 과학은 필사 인간을 우주에서 추방된 자가 되도록 선고(宣告)하려 한다. 그러한 부분적 지식은 나뭇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선과 악, 두 가지로 이루어진 지식이다. 진실이 아름다운 것은 진실이 충만하고 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찾을 때, 사람은 신성하게 실재하는 것을 추구한다.

2:7.5 (42.6) 추상의 허위, 즉 현실의 한 모습에만 집중하고 그러한 고립된 모습이 진실 전체라고 선언하는 버릇에 빠질 때, 철학자는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다. 현명한 철학자는 언제나 모든 우주 현상 뒤에 있는, 선재(先在)하는 창조적 설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창조자의** 생각은 반드시 창조 활동보다 앞서 간다.

2:7.6 (42.7) 지적 자의식(自意識)은 진실 개념의 철학적 일관성만 아니라, 상존하는 **진실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에 따라서, 진실의 아름다움, 진실의 영적 품질을 더욱 확실히,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진실을 인식하고 나서 행복이 뒤따르는데, 이는 진실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진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에는 실망과 슬픔이 뒤따른다. 실체가 아닌 까닭에, 잘못은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될 수 없다. 신성한 진실은 그 영적 향기로 가장 잘 분별된다.

2:7.7 (42.8) 영원한 추구는 통일, 신과 일치되기를 찾는 것이다. 방대한 물리적 우주는 **파라다이스** 섬 안에서 한데 모이고, 지적 우주는 지성의 **하나님**, 곧 **합동 행위자** 안에서 한데 모이며, 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성격 안에서 일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시공에서 고립된 필사자는,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우주의 아버지**의 직접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사람의 **조절자**는 **하나님**의 분신이며, 언제까지나 신과 하나가 되기를 추구한다. **조절자**는 **첫째 근원 중심의 파라다이스** 신과 함께, 또 그 안에서 일치된다.

2:7.8 (43.1) 최고의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것은 실체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신이 선한 것이 영원한 진실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조차도 그 통일성이 주는 조화에 있다.

2:7.9 (43.2) **히브리** 종교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학의 사실적 진실, 그리고 예술의 매력 있는 아름다움과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가 진실을 상대적으로 배척하고 아름다움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길, 지혜롭지 않은 바로 그 길을 줄곧 추구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립된 선 개념, 추상적이고 동떨어진 개념을 멀리하는 경향이 갈수록 더 생기게 되었다. 현대 종교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고립된 도덕은 많은 20세기 인간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도덕적 명령에 덧붙여,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의 진실,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진정한 인품 성취의 중대성을 똑같이 고려한다면, 그 도덕은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2:7.10 (43.3)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영적 통찰력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남녀, 곧 우주의 진실, 우주의 아름다움, 신의 선하심에 관한 확대되고 지극히 통합된 현대적 개념으로부터 새롭고 흥미 있는 생활 철학을 감히 만들 자를 향한 것이다. 이처럼 도덕에 관한 새롭고 올바른 선견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을 끌어당기고, 인간의 혼에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도전할 것이다. 진실 · 아름다움 · 선은 신다운 실체요, 사람이 영적 생활의 눈금을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자**의 이러한 최고의 품질은 사랑인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조정되고 통일된다.

2:7.11 (43.4) 모든 진실 — 물질적 진실, 철학적 진실, 또는 영적 진실 — 은 아름답고도 선하다. 모든 참된 아름다움 — 물질적 예술이나 영적 균형 — 은 참되고도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은 — 개인적 도덕이든, 사회의 형평이든, 또는 신성한 봉사이든 —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과 건전한 정신과 행복은 진실 · 아름다움 · 선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섞임에 따라서, 이 셋이 통합된 것이다. 그러한 수준의 효율적 생활은 에너지 체계, 개념 체계, 영 체계, 이 셋을 통일함으로 생긴다.

2:7.12 (43.5) 진실은 일관성이 있고, 아름다움은 사람을 끌어당기며, 선은 안정을 가져온다. 실체인 것의 이러한 가치가 인격자의 체험 속에 조정될 때, 그 결과는 지혜로서 조절되고 충성으로 자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사랑이 된다. 모든 우주 교육의 참 목표는 여러 세상에서, 고립된 아이가 확대되는 체험에서 나타나는 더 큰 실체들에 더 잘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수준에서 유한하고, 더 높은 신 수준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2:7.13 (43.6) **[유버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한 신성한 조연자가 발표했다.]**

[11]: 2:2.2 잠시라는 뜻. 유대인은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밤을 초경 (해진 뒤-10시), 중경 (10-2시), 새벽(2-6시)으로 나누었다. 예레미아 애가 2:19, 사사기 7:19, 사무엘 상 11:11.
